

I=I, Idea, Invention

지금은 I 이론시대(13)

백년전의 발명

골동품이 가진 가치의 근원은 단연 시간이다. 시간이 흐르면, 조잡한 옹기 그릇도 귀한 칠사대접을 받으며 호강에 겨운 생활을 한다. 하긴 긴긴 세월의 짓눌림을 견디어 낸 시대를 증거하는 역사물에 대해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 분명할 것이다. 그만큼 역사성이란 중요한 요소이니까...

그러나, 시간의 평가가 모두에게 이처럼 관대한 것은 아니다. 발명품이나 아이디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시간의 평가는 오히려 잔혹하기만 하다. 조금 현시대에서 벗어나도 구닥다리 취급을 하고, 망각의 모래에 파묻어 버리기 일췌이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발명이란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구시대적 발상에 연연하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586시대에 286컴퓨터가 쓰레기 취급 당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 방식에 젖어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항상 시대를 앞질러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이런 고정적 생각은 편견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복잡미묘한 사고능력에서 발산된 아이디어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몇가지 예를 살펴봄으로써 이 궁금증을 풀어보자.

식당에서 요긴하게 쓰일만한 아이디어 하나. '요리를 배달하는 꼬마전차'라는 것으로 굳이 말하자면 자동 주문배달 시스템이라 할 만하다.

아이디어의 요점은 식당의 서비스를 자동차로 하는 것. 즉, 웨이터 대신에 꼬마전차가 식당의 곳곳을 누비며, 음식을 나르고 주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식탁의 사이 사이에 거미줄처럼 레일이 연결되어 있고, 손님 식탁에는 자동메뉴 선택 버튼이 있다. 손님이 좌석에 설치된 메뉴판을 보고 이 선택버튼을 누르면, 꼬마전차가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을 레일을 타고 날라오는 것이다.

식탁 사이로 낮은 기적 소리를 씩씩하게 달리는 꼬마기차. 상상만해도 재미난 광경이다. 꼬마 손님들이 이 신기한 모습에 즐거워할 것이고, 기여운 전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이 식당을 찾을 것이다. 한마디로

명소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식당측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별도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선전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특별한 식당 체인점을 구상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성 싶다. 요즘처럼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대에 어울리는 재미난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디어가 세대를 뛰어넘는 발상의 위대성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저 아이디어의 기저가 특이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 아이디어의 탄생 시점에 있다. 이것의 생년월일이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나이를 굳이 따진다면 한 백여살쯤 된다고나 할까? 백년이나 묵은 낡은 아이디어가 시대감각에 절대로 뒤쳐지지 않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긴, 때론 갈릴레이같이 시대를 뛰어넘는 천재도 있는 법이니까. 소발에 쥐잡기 식으로 멋진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아직도 의심을 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예들을 살펴보자. 거듭 강조하지만, 이 모든 아이디어들은 백여년전에 탄생한 것들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중선전기. 말 그대로 공중을 대형 스크린으로 삼아, 선전을 하는 시스템이다.

스모그 현상이나, 안개로 인해 뿌연 하늘

에 대형 영사기로 빛을 발사해, 거대한 화면을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아이템이다. 요즘 인기를 더해가는 야외 영화관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적당하다.

찌푸린 하늘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화면. 어느 누구도 이 멋진 장면을 외면할 순 없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절로 호뭇해지는 멋진 아이디어이다.

또 하나, 광고 인쇄타이어도 공중선전기와 같이 독특한 광고 효과를 노린 곳 아이디어이다. 공중선전기가 하늘을 상대로 하는 빨간 마후라라면, 광고 인쇄타이어는 육지를 주름잡는 용감무쌍한 육군이라 할까? 공중선전기처럼,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발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발상의 요점은 타이어에 광고 문구를 새겨 넣어, 자동차가 달릴 때 저절로 도로에 인쇄되도록 하는 것. 막대한 제작비도 필요 없고, 현대 과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이다.

도로가 온통 선전문구로 뒤덮인 광경을 생각한다면, 당장 쓰기엔 약간 망설여지는 점이 없진 않지만 발상 자체만으로 후한 점수를 얻을 만하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저절로 지워지는 페인트를 사용한다면 한다면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고, 도로법이 허용만 된다면... 수준높은 아이디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에디슨의 착상이 준비되어 있다. 에디슨이 활동하던 당시의 기술수준으론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지금까지 파문혀 있었으나, 지금이라면 개발 가

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이른바 소리의 진동을 이용하여 모터를 움직이는 장치. 소리의 진동으로 진동판이 움직이고 이것이 다시 관성바퀴에 작용하여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기본 원리이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작동하는 기계류도 바로 이 발상을 기초로 응용될 수 있다. 이른바 최첨단이라 일컬어지는 음성인식시스템의 원류도 저 먼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태양열을 이용한 인쇄기, 선실과 선체를 분리하여 흔들림을 없앤 쾌적한 쾌속선 등.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잠들어 있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쉽게도 인간의 과학력은 상상력을 따라잡지 못한다.

또, 인간의 상상력은 시대의 흐름에 붙잡히지도 않는다.

백여년의 세월이 흘렀다해서, 함부로 경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이요, 정신력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전대의 인간들보다 후대에 태어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그들이 상상만으로 그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전된 기술력으로 현실화할 수 있으니.

아이디어의 세계에 뛰어든 이상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백년 전이든, 이백년 전이든, 인간의 복잡한 두뇌 활동의 산물인 무수한 보석의 파편들은 변함이 없다. 항상 같은 빛

깔과 가치로 발견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버려진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일 기회를 가지는 것. 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이다.

미세스 에디슨

누구나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 세상. 남편은 돈 잘벌고 동시에 아이들에겐 자상한 아버지여야 하며, 아내에겐 때론 연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직장을 가진 주부라면, 가사일에 푹 뿌러져 설것이를 미루는 법이 없고, 회사에선 유능한 오피스맨이어야 한다. 아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산수, 국어는 물론이요, 음악, 체육에까지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야 비로소 대접을 받는다.

세상이 이처럼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때문인가? 전업주부의 위치는 웬지 처량하게 보인다. 많은 여성들이 주부라는 직업에 만족치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때론 한탄 섞인 푸념을 한다.

남들은 자기 일을 가지고 떼떽이 살아가는데... 내 처량한 신세라니, 이제 뭘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이는 것도 없으니...'

시청률 높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미모 완벽하고, 무척 지적이며, 깔끔하고 알뜰한 살림꾼인 주인공을 대다수의 여성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처량하게 바라본다. 매일 가스렌지와 걸레, 빗자루 등과 할일없는 씨름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절망은 금물. 주부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업주부야말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농사에 대해선 농사꾼이 제일 잘 아는 법이고, 정치에 관한 것은 정치가가 가장 정통하다.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불편함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단연 주부이다. 주부 이외의 누가, 세탁기용 가루 세제가 습기에 굳어, 쓰기 불편한 줄 알겠으며, 장마철 옷장에서 피는 곰팡이의 정체를 알겠는가?

이렇게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곧바로 아이디어화 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주부들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하였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삼각팬티의 발명, 아기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양말, 남성의 해방을 선언한 이중 팬티, 모든 음료수를 지켜주는 왕관 뚜껑의 발명 등 우리의 깊숙한 곳과 관련된 많은 발명품들이 모두 평범한 주부의 아이디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적극적인 주부의 경우에는 상설 전시장까지 개설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일본 주부인 그녀의 이름은 '미세스 에디슨'. 물론 본명은 아니고, 그녀의 상설 전시장의 상호명을 딴 별명이다. 어쨌든 그녀는 에디슨이라 불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기발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그녀의 직업인 주

부생활에서 얻은 것들. 그녀의 아이디어 상품들을 살짝 엿볼라치면, 물이 튀어도 젖지 않는 방수 에이프런, 비가 올 때는 방수 우비가 되고, 쇼핑을 할 때는 숄더백으로 변신하는 만능 보자기등 실용성 만점의 재밋감을 발하는 것들이다.

'아기가 잠을 자다가 이불을 차내는 것을 보고, 고민을 시작했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 여전히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이불에다 고무벨트를 맞물려 매단 소위 '안전벨트 이불'을 시작으로 그녀의 발명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큰 호평을 받아, 그녀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것을 계기로 하나 둘씩 아이디어의 숫자를 늘려 나갔다.

'보이는 모든 것이 아이디어의 대상이었지요 머리 속에서 저절로 생각이 퐁퐁 샘 솟았죠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인 아이디어의 숫자는 약 70여건, 모두 생활용품을 약간씩 개선한 것이었다.

'아깝더라구요,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내 전시장을 갖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그 길로 자신의 집에 아담한 사설 전시장을 꾸몄고, 항상 자신의 발명품을 20여점정도 진열하였다.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그녀는 과감하게 도전했다. 아마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선보인 아이디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결국 사업

가의 눈에까지 띄게 되었다.

몇몇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어 시장에 선보이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덕분에 얻어진 열매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 특허 출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더구나 출원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얽힌데 얽친 격으로 시중의 발명가들과 기업을 연결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간히 나오는 훌륭한 아이디어까지도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예 발명에 대한 의욕조차 잃고 자포자기하는 발명가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렇게 발명가의 입지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출 때 '미세스 에디슨'의 대담한 노력은 타의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녀는 아이디어를 내는 작업뿐 아니라 출원 자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변리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출원을 한다고 한다. 정말 보기드문, 본받아야 할 집념이 아닐 수 없다.

'미세스 에디슨'과 같은 맹렬여성의 자격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녀와 같이 자신의 전시관을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주부가 가진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세계에 따로 마련한 나만의 전시장, 그것만으로도 뿌듯하지 않은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

에게 알릴 기회를 항상 노리도록 하자. 스스로 적극적이지 못할 땐, 기회도 적극적으로 당신을 찾지 않는다. 기회는 찾는 자에게만 오는 법이니까.

기대해본다. 훌륭한 주부로서, 정렬적인 아이디어맨으로써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여성이 강할 때, 세계가 진보한다고 하지 않던가!

분수에 맞는 목표

성공의 승패를 가르는 요건은 무엇인가? 학력 아니면 재력? 그도 아니면 타고난 운? 운도 좋고 학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뒤따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선 소위 '성공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의없이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있는 법이고, 계획이 있어야 일이 진행된다. 만천하가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모든 목표가 다 실효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무작정 감정에 치우쳐 세운 목표는 없느니만 못하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우주선 발사의 장엄한 광경에 반해서, 혹은 지면을 장식하는 연구소의 업적에 자극받아 무심코 세우는 목표들.

'차세대 우주선을 발명해야겠다.'

'인공구름 제조기? 전망이 밝군. 한 번 도전해볼까?'

자신이 가진 밥그릇의 크기도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은 스스로 실패를 불러

들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우주선에 대해, 기본적 원리도 모르는 처지에 그 복잡한 구조를 정복하겠다고 서두르는 사람이나, 공학적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이 발명이란 거대한 분야에 덤비는 행위는 허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짖어대는 바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처음 발명의 세계에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밀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능력, 사회적 조류, 기술의 수준, 관련분야기술의 수준까지 모두 고려한 후에 목표 성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중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손을 뻗어 닿는 나뭇가지의 밤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듯이, 자신이 오랜 세월 닦아온 노하우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좋은 예로 고무장화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고무장화라는 아주 단순한 물건 하나에도 도전자의 위치와 능력에 의해 제각기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다. 생선가게 아저씨와 포경선에서 일하는 어부 등 제각기 필요로 하는 부부에 따라 아주 성격이 다른 고무장화가 탄생하는 것이다.

생선가게를 경영하는 ㄱ씨는 주로 얼음을 다루는 작업을 한다. 길다란 장화를 신고 얼음 위를 걸어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데, 발가락 사이사이에 대책 없이 번지는

무좀이 아주 골치거리였다.

차가운 얼음이 뿜어내는 냉기로 장화의 바깥 온도와 장화 안의 온기 차이에 의해 장 안에는 항상 습기가 축축하게 배어 있었다. 그 덕분에 발가락 사이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이 탓에 지긋지긋한 무좀이 찢겨머리처럼 붙어 버린 것이다.

ㄱ씨는 참다못해 장화의 개량을 생각했다.

‘장화 안에 배어있는 습기를 없앨 방법은 없을까?’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건초를 말리는 창고에 나있는 작은 창문.

‘맞아! 공기가 통하는 장치를 해두면 습기가 마를거야. 창고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이 힌트를 놓치지 않고, 그는 고무장화의 앞 뒤에 통기구멍 장치를 하였다. 이 개량 장화의 효과는 그가 기대했던 그 이상. 그는 뽀송뽀송한 고무장화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이 작품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이익도 보았다.

또 한 사람 ㄱ씨는 포경선을 타는 어부였다. 그의 골치거리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 설새없이 바닷물과 접해야 하는 작업의 성격상, 그에게 길다란 장화는 필수품이었다. 여차하면 잔물에 목욕을 해야 할 판이었으니...

그런데 이 장화는 움직이기에 너무 불편했다. 뻣뻣한 고무로 만든 장화이니 무릎을 굽히기 힘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짜증이 날 정도였다.

ㄱ씨가 필요한 것은 무릎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고무장화. 그는 작업을 하는 틈틈이 장화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온 했다.

이렇게 장화와 씨름하기를 십여일. 그는 마침내 무릎 부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고무장화를 개발했다. 새로운 고무장화의 원리는 간단하다. 장화의 무릎부분에 아코디언처럼 주름이 잡혀있어, 관절부분에 여유가 많은 것이다.

어찌보면 아주 하찮은 아이디어이지만, 불편을 느껴오던 ㄱ씨로서는 들도 없는 보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이 자유로운 고무장화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또한 이 특수 장화는 ㄱ씨 뿐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며 더할 나위없는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화에 관한 이야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ㄴ씨는 고무장화의 뒷축이 빨리 닳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에 매달렸다. 그가 만든 작품은 뒷축에 쇠장식이 있는 것. 이 아이디어 또한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실용화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장화라는 한가지 물건에도 다양한 목표가 세워질 수 있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장화, 공기가 잘통하는 장화, 튼튼한 장화 등 생활에서 느끼는 단편적인 불편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 아이디어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저 무턱대고 '좋은 장화를 만들자'라고 몽툰한 목표를 세웠다면 ㄱ씨의 장화,

ㄱ씨의 주름장화 등의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기를 잘 통하게', '쉽게 움직이도록'이라는 다소 짜잔한 목표가 있었기에 작업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주인공들의 분수에 가장 적절한 부분이었기에 더욱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항상 장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에, 장화의 장단점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량 기술도 특별한 것이 아니기에 수월히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라지만, 도끼가 없이는 나무에 흠집조차 낼 수 없고 마음을 백 번 먹으면 한 번은 몸으로 움직여야 일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모든 것은 일방통행이 될 수 없다.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없다. 적어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도전하자. 그 효과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왕연중기> 발특0711

